안치홍

스토브리그 고요한 KIA 내년에는 'FA시장 큰손'

안치홍·김선빈 2019년 예비 FA
최대어 잡기 경쟁…구단 예산 고민

고요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KIA 타이거즈, 내년에는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의 큰손이다.

올 시즌이 끝난 뒤 KBO리그에서 FA자격을 얻은 선수는 최정·이재원(이상 SK), 양의지(두산), 송광민·이용규·최진행(이상 한화), 이보근·김민성(이상 넥센), 윤성환·김상수(삼성), 노경은(롯데), 박용택(LG), 금민철·박경수(kt), 모창민(NC) 등 총 15명이다.

이 중 거취가 확정된 선수는 4명.

내야수 최정과 포수 이재원이 각각 6년간 총액 106억원(계약금 32억원·총연봉 68억원·옵션 6억원), 4년간 총액 69억원(계약금 21억원·연봉 48억원)에 SK 잔류를 선언했고, 내야수 모창민도 3년간 총액 20억원(계약금 8억원·연봉 3억원·옵션 3억원)에 합의하면서 내년에도 NC 유니폼을 입는다.

이번 스토브리그의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던 포수 양의지는 4년 총액 125억원(계약금 60억·총연봉 65억원)의 초대형 계약으로 두산에서 NC로 둥지를 옮기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아직 11명의 선수가 남아있지만, KIA의 시선은 이미 2019년 겨울로 향해있다.

올 시즌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KIA의 입맛을 당긴 선수는 공수를 겸비한 최고의 포수, 양의지였다. 특히 KIA에는 젊은 투수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노련하게 이끌어 갈 포수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KIA는 관람자로 양의지를 지켜봤다.

올 시즌 우승 팀에서 5위로 추락을 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무엇보다 내년 시즌 KIA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키스톤 콤비' 김선빈, 안치홍이 동시에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예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A급 선수 영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KIA는 그동안 FA 시장에서 큰손으로 활약을 해왔다.

KIA에서는 최형우(이하 연봉 15억원), 윤석민(12억5000만원), 이범호(6억5000만원), 나지완(6억원), 김주찬(4억원)과 사실상 FA나 다름없는 양현종(23억원) 등 6명이 FA 신분으로 2018시즌을 뛰었다. KIA는 올 시즌 이들 6명의 연봉만으로 67억원을 썼다.

이번 겨울 윤석민이 FA 요건 미달로 일반 선수로 재계약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역대 최다 삭감액' 경신을 앞두고 있지만, 내년 시즌이 끝난 뒤 김선빈과 안치홍이 KIA의 FA 선수 대열에 합류하면 FA 선수들의 연봉 비중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올 시즌 팀을 넘어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2루수로까지 발돋움한 안치홍은 꾸준한 활약과 성실함 그리고 타 팀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벌써 2019년 FA 최대어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타격왕' 김선빈도 KIA를 대표하는 타자이고, 팀은 올해도 유격수 백업 고민도 풀지 못하면서 공수에서 비중이 크다.

또 신인 시절부터 KIA를 상징하는 타자로 활약한 두 선수는 팬들의 절대적인 사랑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는 내부 단속만으로도 버거운 입장이 됐다.

물심양면으로 2019년 FA를 대비해야 하는 KIA가 이번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두 선수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공염불 된 'FA 계약금 총액 30% 상한'

NC 양의지·모창민 40% 넘어
과도한 경쟁 여전…SK만 지켜

4년간 총액 125억원을 받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NC 다이노스로 옮긴 자유계약선수(FA) 양의지는 계약금으로만 60억원을 받는다.

계약금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한다.

역시 NC와 3년간 최대 20억원에 사인한 모창민의 계약금은 8억원으로 총액의 40%에 이른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프로 10개 구단은 FA 상한액을 4년 총액 80억원으로 묶고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FA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

구단 간 과도한 지출 경쟁을 막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계약금을 주는 관행도 깨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FA 총액 상한 설정이 불발된 터라 각 구단이 계약금 총액 30% 상한을 지킬 의무는 없다.

다만, 구단들이 합의한 '합리적인 투자'란 명분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점에선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내부 FA를 모두 잡은 SK 와이번스만 계약금 30% 상한을 지켰다.

SK는 최정에게 6년간 총액 106억원이라는 거액을 선사하면서 계약금을 30% 선인 32억원에 묶었다. 역시 4년 69억원을 받는 조건에 SK에 잔류한 이재원도 총액의 30%인 21억원을 계약금으로 받는다.

SK의 한 관계자는 12일 "애초에 두 선수와 계약할 때 계약금은 30%로 묶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선수들은 계약금을 많이 받기를 희망한다. 연봉은 해마다 10개월씩 나눠 받지만, 계약금은 2~3번에 걸쳐 받는 큰 목돈이다.

FA 계약금은 성공한 선수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간 고생한 대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일본 야구판의 '사이즈'를 KBO리그가 따라잡을 수 없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연봉보다는 계약금에 치중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일본프로야구 선수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것과 달리 KBO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KBO리그 최고 연봉은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의 25억원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연봉이 높은 대신 FA 계약 때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보다 훨씬 작다.

역대 FA 최대 계약금은 김현수(LG 트윈스·4년 115억원)가 받은 65억원이다. 4년 150억원에 계약한 이대호는 계약금 50억원, 연봉 총액 100억원에 사인했다.

올해 FA 시장에 남은 선수는 11명. 이들의 계약금은 총액의 몇 %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NC, 새 외국인 타자 베탄코트 영입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새 외국인 타자 크리스티안 베탄코트(27)를 영입하고 2019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다.

NC는 베탄코트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파나마 출신인 베탄코트는 2013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빅리그 5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22, 홈런 8개, 타점 46개를 올렸다.

포수, 외야수, 1루, 2루 수비를 하는 만능선수다.

올해엔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타율 0.297, 홈런 20개를 남겼다.

NC는 우완 정통파 투수인 드루 루친스키(30), 에디 버틀러(27)와도 모두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크리스마스 소원은
'강정호의 재기'

USA투데이 30개 구단 소원 꼽아

미국 매체가 강정호(31)의 재기를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크리스마스 소원으로 꼽았다.

미국 일간신문 USA투데이는 12일 'MLB 팀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원할까'라는 제목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30개 구단의 소원을 하나씩 꼽아봤다.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피츠버그의 크리스마스 소원으로 강정호를 언급했다.

이 신문은 "거의 두 시즌을 날린 내야수가 강정호가 옛 기량을 되찾고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 피츠버그의 바람일 것이라고 적었다.

2015년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강정호는 2016년까지 두 시즌 동안 타율 0.273에 36홈런, 120타점, 장타율 0.483을 기록하며 팀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6년 말 한국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뒤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올해 극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지만 빅리그 재입성을 준비하던 지난 8월 왼쪽 손목 수술을 받아야 했다. 피츠버그는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강정호는 시즌 막판 메이저리그로 복귀해 3경기에 나와 6타수 2안타를 쳤다.

피츠버그는 올 시즌이 끝나고 구단 옵션 실행을 포기하는 대신 강정호와 보장 금액 300만 달러, 보너스 250만 달러 등 최대 550만 달러짜리 1년 계약을 새로 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매체도 피츠버그에 강정호의 재기만큼 값진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USA투데이는 류현진의 소속팀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계약 연장까지 한 만큼 월드시리즈 우승', 추신수가 뛰는 텍사스 레인저스는 '향후 명예의 전당에 입회할 아드리안 벨트레가 떠난 자리를 메울 3루수'가 크리스마스 소원일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2월 15일(토)

▲광주호산악회 12월 15일(토) 완도 소안도 섬산행 , 06: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20 롯데백화점, 06:30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악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2월 16일(일)

▲전남산악회 12월 16일(일) 구례 갈미봉, 깃대봉(494m), 염주체육관 07:30, 운진각앞, 양동시장, 광주역 08:00, 두암동홈플러스 08:10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3642 5197, 010 5378 5702

12월 19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19일(수)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팔용산(328m) 돌탑,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2월 22일(토)

▲광주호산악회 12월 22일(토) 해파랑길19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악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2월 23일(일)

▲광주알프스산악회 12월23일(일) 대전 동구 식장산 송년산행, 염주체육관 07:00, 대인광장 07:20, 각화동홈플러스 07:30 ※다음카페 광주알프스산악회 ☎ 010 8743 8244

▲광주산사모산우회 12월23일(일) 화순 옹성산 송년산행, 염주 모아레포츠 입구 06:3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05, 비엔날레주차장 07:20, 문화예술회관 후문앞 07:3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2월 23일(일) 갑남산&투봉, 염주체육관 07:40, 무등경기장 08:00, 동광주홈플러스 08: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2월 26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26일(수) 전남 보성 오봉산(324m) 송년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019년 1월13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월 13일(일) 대전 계룡산(845m),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일일(one&one)(이하 갑이라 한다) 와 티에이에스 주식회사 는(이하 을이라 한다) 2018년 12월 12일자 개최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갑) 주식회사 일일(one&one)의 소방시설공사업(제2016-02-00649호)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티에이에스 주식회사 와 합병하고 (갑) 과 (을) 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제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1. 양도대상 : 소방시설공사업(제 2016-02-00649 호)
2. (갑) 상 호 : 주식회사 일일(one&one)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6, 2층(임동)
   대표이사 : 최영규
   전 화 : 062-525-8846
3. (을) 상 호 : 티에이에스 주식회사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08, 701호
   대표이사 : 신정현
   전 화 : 062-942-8907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 조합은 2018년11월23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 하였으므로 당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전방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00

청산인 권 병 욱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1관	도어락
2관	보헤미안 랩소디, 엘리엇과 산타 썰매단
3관	도어락, 트루먼 쇼
4관	국가부도의 날,
5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6관	도어락, 헌터 킬러
9관	국가부도의 날,
7관 씨네커플	런닝맨 : 풀룰루의 역습, 성난황소
8관 씨네커플	부탁 하나만 들어줘, 모털 엔진, 헬 페스트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2018미술단체 공모전 예맥21년,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	11. 28(수) ~ 12.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12. 14(금)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12.18(화)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Wish your merry X-mas	12.24(월)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